

# 평 가 사 유 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 심사명 :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제안공모 심사

응모업체	평 가 사 유
응모업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잘 구현되었음.</li> <li>· 내부의 공간에서도 현대 미술관으로서 역년 구성으로 제안됨.</li> </ul>
응모업체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가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구현하지 못한 것임.</li> <li>· 종근간 복도, 복층입구 하역공간간의 동선교차등 내부 공간 구성도 불합리.</li> </ul>
응모업체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의 고려하는 라하게 고려하여 내부공간구성이 불합리하게 계획되었음.</li> <li>· 따라서 외부에서 보는 형태도 일관적이지 못함.</li> </ul>
응모업체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의 상징성, 입면디자인등 적절하게 제안되고 있음.</li> <li>· 수장고의 위치가 기존수장고와의 연결성 부족.</li> <li>· 전시공간 구성도 현대적 흐름과 맞지 않음.</li> </ul>
응모업체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1관과의 관계를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음.</li> <li>· 다만 등근의 순회 해석 때문에 내부공간 계획에 약간의 불합리</li> </ul>

2023. 12. 5.

심사위원 : ) 임영승

(인)

# 평 가 사 유 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 심사명 :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제안공모 심사

업 체	평 가 사 유
응모업체 A	지형의 특색은 잘 살리는 베리타 매스 형태로서, 그중의 큰사람은 원형구조로 향후 가변성과 유연성을 갖는 우수한 제형임. 1관과의 연계가 간헐적으로 있어, 외부에 다양한 레벨이 있어 접근성 좋음, 내부에서도 수직연계가 우수함.
응모업체 B	매스의 양면 부분은 지하로 내려 매스의 수직경로를 잘 살리고 있으며, 측면부의 선은 정원은 식과 조망에 배려하여 각도와 면적까지 고려하는 유익함. 다만 리노베이션 용도로는 100% 정도 원형의 증설도 고려하여야 하며, 양면의 레벨차는 이용과 매스중심의 리노베이션
응모업체 C	전체 매스는 분화한 형태로 인지도가 높게 지형하인. 다양한 레벨로 구성 하되 지형의 특성과 잘 맞는 제형이 되어 있음. +15 레벨의 수평적인 야외 테라스는 휴식하는 장소 좋으나, 개인이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야 함. 외부 공간이 내부에서 원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쉬움.
응모업체 D	지형의 특색은 잘 살린 베리타 매스 형태는 우수함. 상층부로 갈수록 쉼터로써 양상이 적고, 다양한 레벨에서 이용공간과 연결되는 정도 우수함. 다만 1.2층부터 내부공간, 1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보이며, 개인 전시공간 GF에서 공간감으로 부족하여 보일 것으로 우려됨.
응모업체 E	1관과의 동적인 연계, 지형적인 순환을 만들어내는 전체적 형으로 매우 훌륭함. 매스의 분화에 대하여 전과 리노베이션에 이용가능한 공간이 수평적으로 훌륭함. 다만 1층에서 단조형상, 전체적인 수직연계의 리노베이션은 하층 이용과층이 부족한 것으로 우려됨.

2023. 12. 5.

심사위원 : 윤종석 

# 평 가 사 유 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 심사명 :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제안공모 심사

업 체	평 가 사 유
응모업체 A	기존 미술관과 마주한 정사각기 배치하게 리는 외출관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다도하리 인공 단상은 제안하였으며 즉 복리사이는 가르리는 품나 루션을 고려하여 환로객 제안 및 인공의 SPACE WALK와 환로객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있음. 아이러니한 디자인.
응모업체 B	질문이후 개별 공간이 레크리에이션 부속을 위해 성도 등이 접어들어 함구공간별 야외공간은 복여하는 디자인이다 다른 선두권이 편이성. 전체 배치가 기존의 미술관은 물론 정사각기 배치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좋음
응모업체 C	여기서부터 미술관 주출입구의 레크리에이션이 다른 아수키에 기존수강인타리 통합여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한공방전로 전사상장 피로가 높을 수 있음.
응모업체 D	사상한 레벨에 따른 공간구성이 뛰어나며 양체적 공간변동성을 잘 나타내는 배치가 계획되었음. 수강인의 유체가 기존의 미술관과 같이 편이성 있게 섹션적 변이여가함기 유녀리며 제 라인루션은 다양한 공간배치가 가능 것이 다른 아수키임
응모업체 E	시형을 잘 환복하여 넓은 정지함의 전환은 레벨차이를 통해 잘 계획이 되었으며 자연하의 다습한 소풍은 보이는 공간배치계획도 보이며 기존 미술관과 정형적 전개성이 높은 공간계획화한 기존 미술관에 대한성이 있음.

2023. 12. 5.

심사위원 : 유승희 (인)


# 평 가 사 유 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 심사명 :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제안공모 심사

응모업체	평 가 사 유
응모업체 A	발주기관의 '스틸스마트뮤지엄'을 건축적으로 <del>확실히</del> 발현하고자 노력한 안입니다. 전시공간이 다소 <del>이</del> 정방형을 가지지 못해 불리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형식의 예술작품을 담을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라 봅니다.
응모업체 B	기능적으로 우수한 계획안입니다. 다만 스틸스마트뮤지엄을 추구하는 발주기관의 목표가 건축적으로 발현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부공간이 협소하다 판단됩니다.
응모업체 C	개별설정은 독창적입니다. 다만 기능적 단점들이 많은 안입니다.
응모업체 D	기능적으로 가장 우수한 안이라 판단합니다. 수장고의 위치설정이 뛰어납니다. 절성토량을 최소화한 계획 역시 우수합니다. 다만 포항미술관 만의 새로운 것에 대한 설정이 다소 아쉽게 느껴 집니다.
응모업체 E	새로운 형식의 뮤지엄에 대한 제시가 좋습니다. 아울러 수장고의 위치계획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다만 그러다보니 전시공간과의 거리가 이격되어 작품전시기 불합리란 부분이 발생한다 보입니다.

2023. 12. 5.

심사위원 : 백 지 능 


# 평 가 사 유 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 심사명 :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제안공모 심사

응모업체	평 가 사 유
응모업체 A	· 외장, 배치 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안으로 보여짐.
응모업체 B	· 간결한 평면이 인상적이고 세련된 계획이나, 도량 서점외수준으로서는 아니런데도 다소 부족해 보여짐.
응모업체 C	· 제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며 레벨 계획이 다소 명확함
응모업체 D	·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이며 모든 계획이 조화롭게 구현되어, 개인적으로는 포점이 있는 마감이 될 것이라 보여짐, 역설적 관측하임니다. 독특한 이미지 아치로
응모업체 E	수상고의 분량, 배치계획은 이기는 안으로, 조성상의 불리함 있음, 전체 도량 서점마감으로 특은 보람이 있음 이리하여 보여짐

2023. 12. 5.

심사위원 : 최정우 

# 평 가 사 유 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

□ 심사명 :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제안공모 심사

업 체	평 가 사 유
응모업체 A	리형에 대한 전·선로계획, 기존미술관과의 관계, 스페이스 워크 고려된 계획이 우수함. 평면계획, 동선계획이 우수함.
응모업체 B	매스가 한 평면으로 거대함. 전시실 용백으로 습기, 배수문제 우려됨. 스틱아트 갤러리에 안주미는 재구성점에 의문이 있음.
응모업체 C	극초입구 레벨문제, 진입동선과 레벨계획이 확대적이지 못함. 볼륨이 다른 가로한 공사배타 외관 계획이 없음.
응모업체 D	1관과의 수직인 연결이 미비함. 평면은 우수하나, 새로운 미술관으로서 새로운 제안능 제시하지 못함. 스틱 미술관으로서 안주미는 재구성점에 의문이 있음.
응모업체 E	수직인 볼륨으로 수직 동선 비효율적. 관람동선 비효율적. 인위적 경사로 심도적 볼륨 의미 없음. 극초입구 레벨차로 가로한 램프 연결.

2023. 12. 5.

심사위원 : 극 형진 (인)

## 평 가 사 유 서(당선작, 입상작)

□ 심사명 :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제안공모 심사

응모업체	평 가 사 유
응모업체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성격과 영역의 전시공간을 제안함</li> <li>· 전시공간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형태의 자원을 사생하여 미려한 입면을 제시함.</li> </ul>
응모업체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래지 레벨을 고려하여 전시공간 등의 긴 공간 구성을 통하여 성과 볼륨을 얻어감.</li> <li>· 긴 공간의 정면 제안을 통하여 간접 조명성능을 높임.</li> </ul>
응모업체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레벨구분 및 볼륨을 대수구분으로 구분하고 형태와 형태를 이루</li> <li>· 내부 공간 레벨차가 공간 연결로 이어져서 양호한 조망감.</li> </ul>
응모업체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래지 레벨과 형태를 이루도록 대수구분을 함.</li> <li>· 전시공간이 다소 단순하고 공공공간의 개방감이 떨어짐.</li> </ul>
응모업체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 대수 공간을 통해 기존 미술관과 형태를 이루.</li> <li>· 특히, 1층의 경우 내부의 연결된 공간 구성을 하였으나 내부 전시공간의 격차 느낌과 연결성이 떨어짐.</li> </ul>

2023. 12. 5.

심사위원 : 강희진